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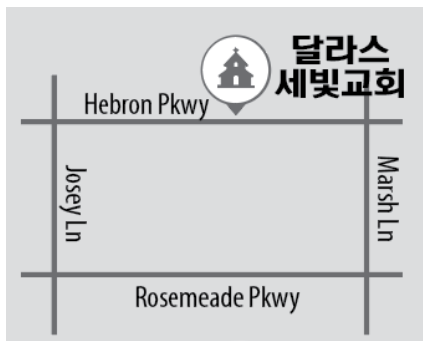
<감사로 여는 하루> 화요일-금요일 아침 6시 (기쁨의 언덕으로)

1. 중보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1)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 2)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서성언 선교사, 서순례 권사, 박세현 자매)
- 3)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북한 선교 (갈렙선교회와 모퉁이돌선교회) 사역을 위하여
- *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수단, 미얀마,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엄목사님을 위하여
2. 개척교회 지도자세미나 21일(월) - 24일 (목)
스프링스 한미감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3. 미 이민법 온라인 세미나 안내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 평신도위원회 주최로 변화하는 미국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2차: 9월 22일(화) 저녁 7시 최신 이민법 및 서류 미비자 법률 정보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헌금안내> Zelle : sebitkgmc@gmail.com (PNC bank)
Pay to the order of : SebitKGMC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김형남 목사
협동목사 / 김승호 목사
반주자 / 권한임 사모
영상 및 음향 / 김찬미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
달라스 만나교회, 케냐 마구무 감리교회
Longview 감리교회, Arkansas 감리교회

표어 :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세빛교회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은혜의 만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2201 E Hebron Pkwy, Carrollton, TX 75010

Tel: 945-360-0049 sebitkgmc@gmail.com

facebook: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 Youtube :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2026년 9월 13일

오전 11:00 / 오후 2:30

교회소식		인 도 자
예배초청		
경배와 찬양	1.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 2. 낮은자의 하나님 3. 예수 예수 거룩한 4. 놀라운 주의 사랑	세빛 찬양단
합심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인 도 자
대표기도		김영님 성도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 함 께
봉 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 함 께
봉헌기도		인 도 자
성 만 찬		집 례 자
성경봉독	빌립보서 2: 5-11	인 도 자
설 교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	담임 목사
찬 양	놀라운 주의 사랑	다 함 께
축 도		담임 목사

온라인 새벽 예배

화요일 - 금요일 / 오전 6시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주일 예배 2부

주일 2:30 / 2층 (End Zone)

다음 주일 담당

9월 기도 순서

- 9/ 6: 권환임 사모 9/13: 담임 목사
- 9/20: 김영님 자매 9/27: 이지혁 집사

은혜의 샘

나사로는 웃었다!

감태광 목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많은 문학 작품 중에 저에게 최고 작품은 유진 오닐의 "나사로 는 웃었다(Lazarus Laughed)!"라는 희극입니다.

유진 오닐은 평생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 대부분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웃었다!"는 보기 드문 희극작품입니다. 막이 오르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무덤에서 막 나온 나사로는 햇살이 눈 부셔 우왕좌왕합니다.

세마포에서 풀려난 나사로는 웃기 시작합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나 조롱이 아닙니다. 그저 즐겁고 유쾌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신을 다시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의 의미로 포옹을 합니다. 이어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옹해 주더니 놀란 얼굴로 둘 러선 사람들을 하나씩 포옹해 줍니다. 사람들을 차례로 포옹해 주는 나사로 얼굴에 파스 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로 돌아갑니다. 베다니 온 마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가 살아난 것도, 나사로가 계속 웃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구경나온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죽어보니 어때요? 저 세상은 어때요? 죽은 다음 이야기를 좀 해 줘요!" 나사로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죽음은 없어요! 우리가 말 하는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가는 문(Portal)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 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사로는 예전처럼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늘 웃습니다. 나사로 집은 '웃음의 집(house of laughter)'이라는 별명을 얻고 베다니 는 기쁨이 가득한 마을로 소문이 납니다.

나사로와 베다니 마을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찾아와 살펴봅니다. 늘 웃는 나사로가 못마땅했던 그들은 나사로를 시험합니다. 공연히 시비를 걸기도 하고 공연히 비난합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웃습니다. 뭐라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사로는 웃었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웃는 나사로를 보면서 막이 오른 유대인들은 로마 관원에게 알립니다. 로마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 없이 웃으며 사는 나사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웃 습니다. 급기야 나사로 집에는 파티 금지와 웃음 금지 딱지가 붙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 는 웃습니다. 나사로의 소문이 자꾸 퍼져 나가고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 사람들은 나사로의 웃음을 싫어합니다.

연극 마지막은 로마 황제가 으리으리한 의자에 앉아 나사로를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황 제가 말합니다. "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괴상한 웃음을 멈추거나 내 손에 죽는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 나사로가 여전히 밝은 미소로 대답합니다. "폐하여!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 사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는 당대 최고의 실력자인 로마 황제가 감 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웃었다!'는 희극인데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해서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이 작품만큼 구체적으로 그린 작품이 없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영생의 길을 아는 나사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세상의 고통에도 초 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는 세상일이 시시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로마 황제보다 더 강했습니다. 유진 오닐은 이 것이 신앙의 능력이라고 웅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불행을 이기는 힘입니다. 부활 신앙 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힘입니다.